

불교계 화장문화 '선도'

사찰상조회등 화장장려 프로그램 마련 적극홍보
 생명나눔회·서천사, 10월10일부터 '화장유언 캠페인'

'화장 장려' 운동이 불교계에 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천사 평명포교인 서천사(주지 진석)와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창)는 오는 10월10~31일 매주 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4시간씩 평명포교인에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 유언장 쓰기'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생명을 나눔시다. 삶을 나눔시다' 주제의 장기기증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화장문화의 정착을 통한 국

토 활용의 효율화와 장기기증 등을 통한 새생명 구제를 목적으로 화장문화에 대한 여론조사, 음성공양 등 문화행사도 매번 개최해 시민들과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미 임종시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영불기도에서부터 수시, 염습, 입관, 발인, 다비(또는 매장)까지 장례의 전과정을 도맡아 화장문화 정착에 앞장서 온 각 사찰·불교단체 상조회도 화장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를 계기로 지역별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제5차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에는 1천5백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불교 교양대 전법사 품수 금지

조계종 포교원...위반면 종단등록 취소기로
 조계종단에 등록된 불교교양대원이 졸업자에게 '전법사'나 '법사' 자격을 품수하면 종단등록이 취소된다.

조계종포교원은 21일 종단등록 51개 불교교양대학에 공문을 보내 "종단이 인정하는 포교사 응시자격 이외에는 일체의 자격 품수를 금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종단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포교원은 공문에서 "각 학교의 임의적인 자격 품수에 따른 재가 승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지난 5월에도 포교사 응시자격 이외의 품수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시달린 바 있다. 현재 7개 불교교양대학에서 전법사 법사 포교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不二정신으로 난국 해결하자"

제5차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총지종 정각사에서 1천5백여 대중 동참

부처님의 지혜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일주)가 주최하고 총지종(총리원장 총지화)이 주관한 진국순회 제5차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각계 인사 등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됐다. <관런기사 3면>

'진호(鎭護)국가기원 철야정진'으로 열린 이날 회향대법회는

총령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용들이야기는 불교의 불(不二)정신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실상을 바로보게 하는 법문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 남과 이웃도 믿을 수 있게 되자"고 기원사를 했다.

김원기노사정위원장은 "오늘의 국난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대수술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공덕으로 위기가 도약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어오전 22일 오후9시부터 총지종 스승 50여명과 부산 정각사 신도들 불자 5백여명이 정각사 3층법당에서 3시간동안 정통 밀교수행법으로 진호국가기원 불사를 올렸다.

국난극복 제6차 참회대법회는 10월15일~16일 오후2시 진각종 서울 불리암, 제7차는 11월15~16일 오후2시 태고종 순천 선암사, 제8차 회향대법회는 11월28~29일 오후2시 법문종 목포 보현정사에서 열린다.

부산=위영란·김원우 기자 (ryui@buddhapa.com)

추석연휴로 다음주 휴간

매주 수요일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도 부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보살이 있다. 피살을 만질 때는 어깨가 힘들고, 어묵을 삶기 위해 양파를 자를 때는 자루 눈물이 나오지만 삶은 표정 한 번 짓지 않는 보살.

"수요일은 교도소를 찾는 날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잠을 설치지만 재소자들이 떡과 어묵을 맛있게 먹으며 터뜨리는 얘기와 웃음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7년동안 영등포교도소를 안방 드나들 듯이 오갔던 이부련보살(51).

이보살이 이곳을 찾는 것은 10명의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교도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초법들을 결연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교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보살의 자매들이 바로 그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매주 수요일 교도소를 방문해 자매들과 떡거리를 나누고 이야기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를 주고 받는 것 뿐이요."

그러나 영등포교도소에서 이보살의 인기는 어느 연애인 못지 않다. 재소자에게 살갑게 다가서는 이보살의 자비행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결국 올해 초 규율이 엄격한 교도소 조차 이렇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교도소에서는 매년 초 자원봉사자와 자매를 새롭게 선정 결연을 맺어주는데, 이보살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수강자들이 수 십명에 이른 것이다. 교도소 측은 할 수 없이 규율을 깨고 지난해 자매들과 그대로 맺어 줄 수 밖에 없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수요일 교도소를 방문해 온 것 밖에 없어요. 그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사실 이보살은 영등포교도소에 유일하게 가까운 자원봉사자이다.

수년간 지속한 일인만큼 이보살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흡수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이보살은 일지리를 소개해 주고 여비를 쥐어준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에 동참할 것을 권할 생각입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a.com

불교문화 체험기행

10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강화 보문사, 선원사지, 무애원 등을 찾아갑니다.

마애관음보살상(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9호)과 천연동굴 법당(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7호)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음기도도량 보문사, 팔만대장경 판각장소인 선원사지 등을 탐사합니다. 특히 무애원에서 설봉스님과 함께 흙을 밟으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은 울가를 소중히 추억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설봉스님과 함께 밟는 도자기"
 '강화 보문사·선원사지·무애원'

출발: 10월18일(일) 아침6시30분 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점심 제공, 도산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해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전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해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재회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불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투고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인락
 △접수처: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전태종공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미술대전 수상작 발표 7면
 "선생님이 개종하래요" 23면
 불교 사회복지 저조하다 3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법당 준공 및 점안법회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사부대중은...

대행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은혜를 갚고 모두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 모르는 이로 하여금 자비광명속에 안주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발원으로 세세생생 영원한 진리의 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법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지금 대행큰스님을 모시고 불상점안과 준공법회를 마련하오니 많은 동참 바라오며, 이 법연으로 고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주지원 사부대중 삼배

● 일시 : 1998. 10. 18. (음 8. 28) 일요일 ● 장소 :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 0591)746-8163